

**선교 활동 보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사야서 55:12**

예언자 이사야는 의외의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상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무들이 손뼉을 칩니다. 한 때 슬픔이 지배했던 곳에 기쁨이 자라납니다. 원한과 갈등과 절망으로 찢긴 세상이 풍요로운 삶으로 피어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들과 함께 누우며 전쟁 중에 있던 나라들이 평화롭게 모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그리스도의 평화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가 끝난 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불타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도전을 받으며 파송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쁨으로 힘을 얻은 평화는 세상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고, 한 번 찾았다고 해도 계속 유지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가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소외 등으로 분열되고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그 힘든 해결책을 삶 속에 실천할 사람들, 용감하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문제에 있어서라도, 한 번에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평화로 인도함을 받을 때, 단호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눔으로써 행동합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의 공동체에 확대하게 됩니다 —25%의 헌금은 바로 여기 교회에 남게 되어 하나님의 집을(사역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찾아 보십시오)함께 지어가게 됩니다. 25%의 헌금은 우리 노회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50%는 장로교 선교국으로 보내져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합 사역을 지원합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집의 성찬 식탁에 둘러앉아 있기에 우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이곳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입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당신이 저희를 당신의 만찬에 모이게 하실 때, 오로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